

[트렌드 트립 #11] 빅데이터로 본 세대별 관광 트렌드 :

‘비워내는’ 2030, ‘채워가는’ 5060

■ ‘활동’에서 ‘경험’으로, ‘관행’에서 ‘취향’으로, 달라진 여행 트렌드

최근 2030 세대와 5060 세대의 관광트렌드가 체력소모가 큰 ‘활동형’에서 콘텐츠 향유와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목적형 경험’으로 변하고 있다.

2025년 통신데이터 기준 전년대비 두 세대 모두 ‘자연경관공원’ 방문이 가장 크게 늘며 1위를 차지했다(2030 +31.1%, 5060 +21.9%) 또한, 휴식을 위한 ‘차밭/다도체험’(각 +12.2%, +8.0%)과 지역 특색을 담은 ‘마을관광지’(각 +9.2%, +7.5%) 방문도 크게 늘었다.

반면 체력소모가 큰 ‘산’(각 -2.5%, -2.6%), 접근성이 낮은 ‘섬’(각 -3.7%, -1.5%), ‘놀이공원’(각 -2.3%, -2.0%) 방문은 두 세대 모두 공통으로 감소했다. 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심리적 여유를 찾는 ‘정적인 힐링’이 세대를 아우르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세대별 방문 증가/감소 상위 목적지 유형]

콘텐츠 향유와 정서적 만족을 위한 목적지 방문 증가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 이동통신 데이터. 2024-2025년 연간 집계 기준

체력 소모가 크고 접근성 낮은 목적지 방문 감소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 이동통신 데이터. 2024-2025년 연간 집계 기준 방문 비중 상위 30개 유형 중

■ 2030 세대, 스트레스를 비우는 회복과 자기돌봄의 여행

전 세대에 걸쳐 '힐링'이 대두되었지만, 2030 세대에게 힐링은 곧 '비워냄'을 의미한다.

2030의 여행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유흥·외식 소비가 줄었다는 점이다. 먹거리·카페거리 방문은 24년 대비 25년에 3.7% 감소해 목적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적이든 거리를 떠난 2030이 향한 곳은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이다. 정적인 저자극 목적지 방문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자연경관공원(+31.1%)과 테마공원^{주)}(+3.3%)에 이어 사찰(+2.5%) 방문 증가가 눈에 띈다. 2030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정적인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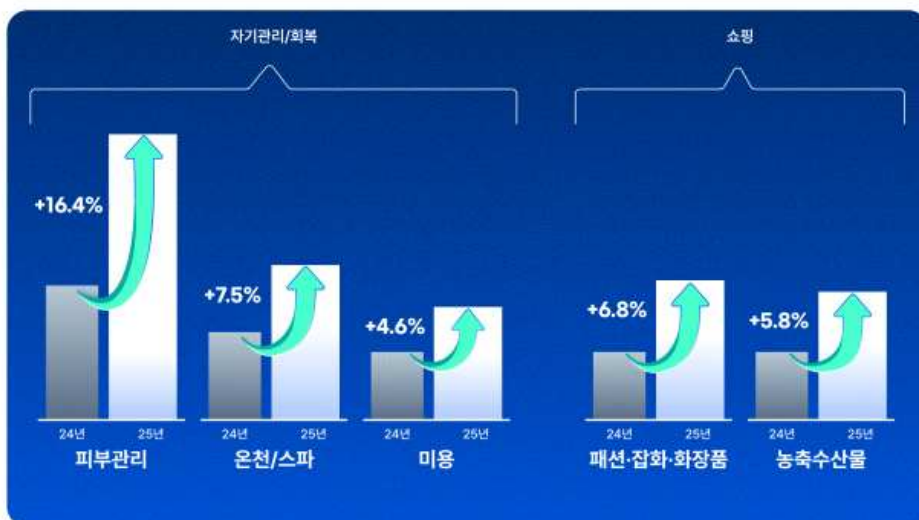
주) 테마공원: 미로공원, 조각공원, 예술공원 등 주제가 있는 공원

사찰은 최근 내면 회복을 위한 여행지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소셜 데이터의 '사찰' 연관어 순위에서 '분위기'가 24년 13위에서 25년 7위로 크게 상승하였고, '산책'(29위, 2.1%)과 '여행지'(24위, 2.3%)가 새롭게 연관 검색어에 진입했다. 이른바 '절멍' 트렌드처럼, 사찰이 종교적·역사적 공간을 넘어 내면을 회복하고 천천히 머무는 여행지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 욕구는 관광 소비 패턴 변화로도 이어진다. 2030은 유흥형 외식지출은 줄인 대신, 오롯이 내 몸과 컨디션을 돌보는 가치소비에 지갑을 열었다. 2030의 자기관리·회복 카테고리 지출액은 25년 전년대비 7.8% 증가해 전체 소비 카테고리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는 피부관리(+16.4%), 온천·스파(+7.5%), 미용(+4.6%) 증가가 두드러졌다.

[관광 지출액 상위 증가 카테고리 및 유형]

자기관리/회복 분야 소비 증가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카드 소비금액 데이터(신한), 2024-2025년 연간 집계기준

■ 5060의 취향과 관계를 채워가는 여행

2030 세대가 '비워냄'을 위해 조용한 공간을 찾았다면, 5060 세대는 문화적 소양과 인간관계를 '채워가는' 목적성 짙은 여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목적지의 성격이다. 5060 세대 역시 걷기 편한 자연경관공원(+21.9%)을 즐겨 찾지만, 체력 소모가 컸던 전통적 시니어 목적지인 산(-2.6%), 숲(-2.3%), 섬(-1.5%) 방문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연장(+5.2%), 전시관(+4.6%), 미술관(+4.4%), 복합문화공간(+4.3%) 등 문화예술 관람 목적지의 방문이 일제히 증가했다.

[’24년 대비 ’25년 방문 증감 주요 목적지 유형]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데이터(KT), 2024-2025년 연간 집계 기준 방문 비중 상위 30개 유형 중

■ 같은 방향을 향하는 여행, 그러나 세대별 상이한 여행의 목적

이처럼 '휴식'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세대별로 그 이면의 욕구와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2030 세대가 피로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정적인 여백'을 필요로 한다면, 5060 세대는 여유로워진 시간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적 호기심과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다지는 '동적인 채움'을 갈망한다.

향후 관광 비즈니스는 단순한 명소 중심의 접근을 넘어, 타깃 세대의 숨은 니즈를 세밀하게 채워주는 정교한 '맞춤형 공간 기획'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원, 사찰 등 자연 친화적 공간에는 명상이나 웰니스 프로그램을 접목해 2030의 '온전한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5060을 위해서는 도심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편안한 동선, 미식을 연계한 '관계형 문화 향유' 모델을 제안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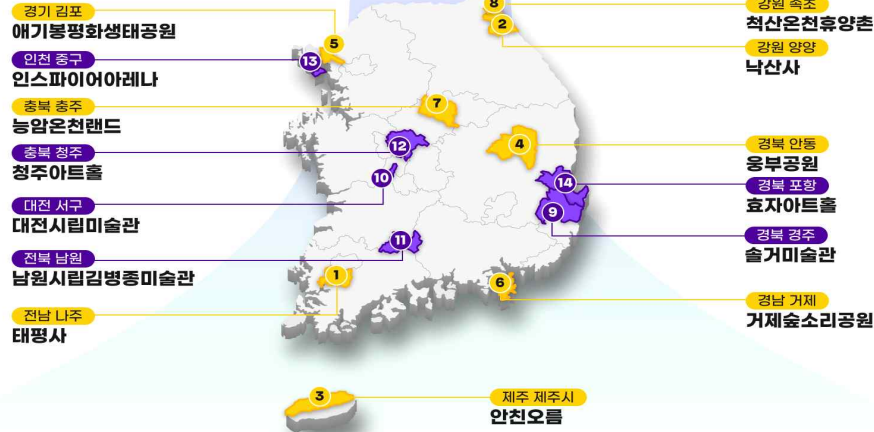
세대별 여행 트렌드 주요 특징 비교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데이터(KT), 2024-2025년 연간 집계 기준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카드 소비금액 데이터(신한), 2024-2025년 연간 집계 기준

데이터로 살펴본 세대별 핫플레이스

2030세대 5060세대



2030세대

절

- 1. **전남 나주 태평사** ▲35%
 목향장미터널과 검벚꽃이 어우러진 봄 힐링 사찰
 #관주근교여행 #목향장미터널 #검벚꽃
- 2. **강원 양양 낙산사** ▲25%
 동해바다를 품은 절경의 바다뷰 사찰
 #바다뷰사찰 #소원성취 #템플스테이 #강원도여행

공원

- 3. **제주 제주시 안천오름** ▲428%
 푸른 초원이 펼쳐진 컴퓨터 배경화면 같은 풍경 명소
 #원도우배경화면실사판 #스냅사진
- 4. **경북 안동 웅부공원** ▲297%
 원도심에서 역사 흔적과 여유를 함께 즐기는 도심 산책 공간
 #한옥산책 #지관서가북카페
- 5. **경기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197%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와 스타벅스가 있는 드라이브 명소
 #북한뷰스타벅스 #서울근교드라이브 #일몰명소
- 6. **경남 거제 거제숲소리공원** ▲107%
 자연학습, 동물체험, 놀이터가 결합된 가족형 힐링 공원
 #숲산책 #양떼목장 #모노레일 #식물원 #수국

온천

- 7. **충북 충주 능암온천랜드** ▲1,202%
 프라이빗하게 탄산온천을 즐길 수 있는 온천여행지
 #전연탄산온천 #가족탕 #핀란드식사우나
- 8. **강원 속초 척산온천휴양촌** ▲37%
 설악산 풍경 속에서 즐기는 천연 노천온천 휴양지
 #설악산노천온천 #소나무숲

5060세대

미술

- 9. **경북 경주 솔거미술관** ▲355%
 연못 풍경을 담은 통유리창이 유명한 한국화 특화 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통창 #인생샷
- 10. **대전 서구 대전시립미술관** ▲314%
 지역 기반 현대미술 전시와 기획전이 운영되는 대표 공공 미술관
 #대전여행 #대전전시 #열린수장고(무료개방공간)
- 11. **전북 남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54%
 지리산 풍경과 건축미가 어우러진 전원형 미술관
 #숭링 #통창 #무료관람 #미안커피(카페)

공연

- 12. **충북 청주 청주아트홀** ▲74%
 클래식 공연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주 대표 공연장
 #오케스트라 #연주회 #합창
- 13.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아레나** ▲71%
 K-팝 공연과 글로벌 이벤트가 열리는 초대형 실내 아레나
 #KPOP콘서트 #미디어아트쇼 #고래쇼
- 14. **경북 포항 효자아트홀** ▲59%
 지역 공연과 무료 영화를 제공하는 포항 대표 문화 공간
 #포스코 #오케스트라 #연극



*데이터 출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건수 데이터(TMAP), POI별 검색건수, 2024년-2025년 연간 집계 기준